

## 스즈짱 드롭킥! 3화 -한국어



※투표결과에 따라 B분기로 진행됩니다.

슬리퍼홀드에 실신 직전, 스즈가 네로미의 팔을 붙잡고 양다리를 머리위로 차올려서 그 반동을 이용해 네로미의 등 뒤로 넘어간다.

“뭣?!”

네로미의 뒤를 잡은 스즈가 붙잡고 있던 팔을 치킨윙으로 고정해 남은 손으로 페이스록을 걸고 양팔을 맞잡아 조인다.

‘치킨윙 페이스록?’

크로스페이스 치킨윙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모양새는 화려하지 않지만 빠져나오려하면 할수록 팔과 목 양쪽에 극악의 고통을 안겨주는 다분히 실전적인 기술. 평소 스피디하고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는 스즈의 스타일과 정반대의 기술이었지만 그렇기에 예상하기 힘든 비장의 수라 할 수 있었다.

“콧, 건방진 짓을..!”

“말했을텐데요. 당신을 쓰러트리기 전까진 질 수 없다고요!”

“큭..! 끄읏..느으윽!”

‘반응이 있어! 이대로 조이면..!’

“...막이래~”

“어?”

네로미가 숨을 들이마신 뒤 몸을 팽창시켜 단숨에 기술에서 벗어난다. 너무 쉽게 기술이 풀리자 당황해 무방비가 된 스즈의 배에 네로미가 주먹을 꽂아넣는다.

**퍼억!**

“우웨엠편..!!”

뱃속 깊이 박힌 비대한 주먹이 위장을 찢부러뜨려 식도로 역류한 위액이 매트에 쏟아진다. 네로미가 상체를 숙이고 고통스럽게 위액을 토하는 스즈를 들어올려 그대로 파워밤을 쫓는다.

“커헭!”

**퍼억!**

“누음!..부우웃! 우우부음...!”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러진 스즈의 배 위로 떨어지는 네로미의 힙드롭. 목 위로 차오른 위액을 제대로 뱉어 내지 못해 입 바깥으로 흘러넘치며 얼굴을 더럽힌다.



“크! 으웃..!”

“안됐지만 난 특이체질이라서 관절기는 통하지 않아. 숨겨둔 비장의 기술이 통하지 않아서 안됐는걸? 후후 후!”

잊고있었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어도 상대는 슬라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관절 따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거야. 태연한척을 가장해 자신에게 올라탄 네로미에게 힘껏 노려보지만 이미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해 그 불안한 기색이 안색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후후, 떨고있니? 불쌍한 새끼강아지. 제아무리 너라도 이 태세에서 빠져나가긴 힘들겠지. 살려달라고 빌 준비는 됐어?”

“누, 누가... 당신 따위에게...!”



**퍽!**

“부웃!”

“너 전에 나보고 용서않겠다던가 말했었지? 어떻게 용서 안해줄건데? 응?”

네로미의 하중에 짓눌려 모든 방어수단을 상실한 스즈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저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폭력을 맨 얼굴로 받아낼 수 밖에 없었다.

....

...

**퍼억! 콰악! 빠직!**

추적추적 빗방울이 떨어지는 야외의 링. 치열한 공방이 오가 상처투성이가 된 이 링도 결국 승부가 정해져 의식을 잃은 상대를 네로미가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있었다.

“오랏!”

“흥, 비명 한번 지르지 않다니 독한 년.”

“선배 일어나...! 그런 녀석한테 지면 안돼!”

헬즈플레이어의 고타풀들에게 양팔이 구속된 스즈가 링 위에 쓰러진 아리사토를 향해 소리쳐보지만 그저 비에 허무히 씻겨져 나갈뿐 그 외침을 닿지 않는다.

“흐응? 그러고보니 너가 있었지?”

**콰직!**

네로미가 의식불명의 중태인 유리사토의 얼굴을 스즈의 눈 앞에서 무릎으로 짓이긴다.

“이제 그만해!”

“흐응~ 그만두라고? 지금 네 처지를 알고는 있는거야?”

네로미가 링 위에서 내려와 코 앞까지 다가오면 스즈가 움츠린 얼굴로 경계한다.

“네 선배가 이 풀이된건 전부 네 탓이잖아? 하마터면 당할 뻔했는데 너 같은 멍청이가 인질이 되어준 덕분에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었어. 정말 감사하고 싶은걸?”

“이 비겁자! 당신들 절대.. 절대로 용서못해!”

하지만...

....

...



“뿅! 부헛! 이제 그만.. 우게엿!”

“그만두라고? 아까의 기세는 어디갔어? 아앙?”

“부헤엿!”

선배의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 원수에게 깔려 처참하게 구타당한 그 모습은 이미 링 위의 천사가 아니라 싸움에 진 개의 모습이었다.



“부탁이니까 그만... 이, 이제 용서해줘...”

“아하핫! 굉장한 얼굴. 이제 좀 현실을 깨달았어? 결국 목숨구걸할거 진작하면 좋았잖아.”

“...”

네로미가 자신의 음부를 스즈의 입에 대고 문지른다.

“자, 빨아봐. 내 맘에 들게 봉사하면 용서해주지.”

하지만, 스즈는 거부하듯 입을 열지 않는다.

“흐응~ 울며불며 목숨구걸한 주제에 못하겠다는거야? 뭐 좋아. 지금부터 내 피니쉬무브로 지옥 밑바닥으로 초대해주지!”

네로미가 스즈를 일으켜 어깨에 걸쳐매고 몸을 낮춰 도약자세를 취한다. 곧 그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더니 지금까지 뛰었던 높이의 2배를 넘는 정신이 아득할 정도의 높이로 뛰어오른다.



**과아아앙-!**

“게헤에에엑!!”

네로미버스터. 다른 능력이 부족함에도 오로지 힘만으로 간부자리까지 오른 네로미를 상징하는 최흉의 살인기로 지금까지 피폭되어 다시 링에 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척추가 분해되는 고통 속에서 스즈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것이라곤 믿기 힘든 괴성이 터져나온다. 결국 실신해버린 스즈의 힘없이 벌려진 가랑이 사이에서 금색 액체가 분사돼 매트를 적신다.

“에에음..! 아아...!”

“싫다~ 이 기술은 이게 문제라니까, 후훗!”

네로미가 실신한 스즈 링포스트로 던진 후 그 얼굴에 힉어택을 때려넣는다.



**퍼-억! 우지끈!**

마치 사람이 차에 치이는 것 같은 굉장한 소리가 링 바깥까지 울려퍼진다. 그 위력을 증명하듯 링포스트가 네로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그 파편과 함께 스즈가 링 바깥으로 나가떨어진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스즈의 불품없이 벌려진 가랑이 사이에서 뿜어져나온 금색 액체가 물웅덩이를 만들어 낸다. 링에서 내려온 네로미가 그 경련하는 작은 몸뚱이를 짓밟는다.

“에엑...게헛헛...!”

“우후훗, 불쌍한 새끼강아지. 약해빠진 주제에 꼴에 나대기나하고 후훗.”

**퍼-억!**

네로미가 스즈의 배를 즈려밟는다.

“주인을 문 개가 어떤 꼴이 되는지 이제 알았겠지? 다음번엔 더 이상 이 언니한테 거스를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줄게~. 벌써 다음이 기대되는걸? 아하하하!”

파이터엔젤, 무패의 히로인으로써 사람들의 동경을 한 몸에 받던 링의 천사. 하지만 결국 강적을 만나 날개를 가위질 당한 채 도로변에 소변을 뿌리는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만다.

지금 돌아켜보면, 이 싸움이 스즈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게 된 최대의 전환점이었다.